

식민지의 엘리트들에 대한 집단 전기

[서평] 정종현(2019), 『제국대학의 조센징 — 대한민국 엘리트의 기원, 그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나?』, 휴머니스트, 392쪽.

이 기 훈*

1. 제국대학 유학생들의 이야기

서평을 부탁받은 것이기는 했지만, 『제국대학의 조센징』은 거의 멈추지 않고 읽었다.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제기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침착하게 풀어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기왕에 근대 동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해 비교사와 비교 문화적 시각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해온 바 있거니와, 이 책에도 그 동안 연구의 공력과 힘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

이 책은 ‘제국대학’이라고 하는 제국 일본의 독특한 엘리트 양성제도 속에 편입되었던 ‘조선인’ 유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집단 전기다. 연구사적으로 이 책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일본의 제국대학에 유학한 조선인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이다. 식민지 조선에 존재했던 경성제국대학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

* 연세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경성제대의 조선인 학생들의 활동과 졸업생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역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제국대학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제국대학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저자는 일본 현지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명부와 목록들을 직접 뒤져서 (현재는 도쿄 제국대학과 교토 제국대학에 국한되어 있지만) 유학생들의 이름, 학적, 경력을 모두 정리하여 연구의 기반을 만들었다.

둘째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이 엘리트 집단의 경험을 다층적 측면에서 역사화하려 했다는 점이다. 책 제목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저자는 ‘조선징’의 민족적 자의식과 정체성은 제국대학생이라는 초엘리트 집단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 대립하는 두 정체성 속에서 이들의 유학 경험과 의식 세계, 이후 행적을 추적해 보고자 했다. 저자 스스로도 프롤로그에서 이 책이 집단 전기라고 밝혔지만, ‘유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되 사람들 각각의 경험과 개성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듯하다. 따라서 유학생의 수, 출신 지역과 계층 등 구조적인 분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경험과 행적을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추적하는 것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근대 일본의 ‘제국대학’ 제도 자체에 대한 소개이며, 3장이 유학생들의 수, 학과, 출신 지역과 이전 학력, 출신 계층에 대한 분석으로 이 두 장 정도가 비교적 구조적인 분석이다. 2장과 4장은 제국대학 유학생들의 자의식과 역사적 평가를 다루고 있으며, 5장은 제국대학의 기반인 일본식 고등학교 제도와 조선인 유학생들의 경험, 6장은 제국대학의 교수들을 소개하고 있다. 7~10장은 제국대학 졸업생들의 행적을 관료, 과학기술자, 운동가, 여성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으며, 11장은 조선인 동창회의 성격 변화를 통해 ‘유학’ 경험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또 12~14장은 해방 이후 제국대학 유학생들이 남북한에서 각각 어떤 역할

을 했는지 정리했다.

2. ‘부록’의 힘

앞서 단정한 문장으로 잘 읽히는 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근대 한국 사상과 문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부록 1> 도쿄제국대학 조선인 졸업생·동창생 명부(1877~1945)」와 「<부록 2> 교토제국대학 조선인 재적생·졸업생 명부(1897~1945)」였다. 도쿄제대 유학생 163명, 교토제대 유학생 236명의 입학 연도, 졸업연도, 출신지역과 학교, 이후 이력을 표로 만든 것인데, 어느새 본문보다 더 열심히 표를 읽게 된다. 간혹 아는 이름을 만나면서, 또 이런 이력을 가진 인물이 있었는지 새삼 놀라는 일도 많았고 향후 근현대 인물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이런 표를 만드는 것은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연구자를 매혹시키는 일이지만 그 공력에 비해서 가시적 결과는 일견 소박하다. 그러나 또 그만큼 탄탄한 연구를 만드는 기반이며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두 표의 잠재력은 이 책에서 다 발휘되지 못한 것 같다. 이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되었다면 다양한 분석적인 접근을 더 시도해볼 수 있었을 듯한데, 책의 내용은 여러 사례들을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어 아쉽다. ‘집단 전기’라는 접근법을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계량화된 분석이나 다른 엘리트 집단과 비교연구 등을 시도해 본다면 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3. 이분법 넘어서기, 그 어려움

졸업생 명부를 읽어보면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 분야에 서 제국대학 유학생들이 많다. 경성제대에는 1941년에야 이공학부가 발족하는 등 식민지 조선에서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고등교육기관이 태부족했으므로 이과 학생들이 다수 제국대학 유학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 책에서도 제국대학에 유학한 과학기술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교토제국대학 출신으로 북한 과학의 기반을 닦은 리승기일 것이다. 저자는 리승기를 민족적 또는 애국적 과학자로 파악하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렇다고 그가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도 아니다.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자들의 선택을 일방적인 민족주의적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자의 질문일 것이다.

‘제국대학’은 일본 제국이 필요한 엘리트를 창출해내는 교육체제지만, 그곳에 ‘조센징’들을 친일/항일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듯하다. 저자는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이 고등문관시험에 몰두하여 식민지 관료가 되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학기술을 통해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던 학생, 항일운동에 뛰어든 학생, 남성 엘리트의 공간에서 버려낸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국대학조차 다양한 식민지 엘리트들이 생성되는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저자는 식민지 청년의 정체성을 가진 채로 제국의 지식을 습득하고 엘리트가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제국대학생들이 거의 거쳐야 했던 당시 일본의 고등학교(치열한 입시를 거쳐야 대학에 갈 수 있는 오늘날과 달리 이때 고등학교들은 제국대학 입학 예비과정 정도의 의미를 지녔다)를 소개하면서, 엘리트적이지만 자유로운 분위기를 많이 묘사하고 있다. 또 당시의 제국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성향을 지닌 요시노 사코조, 가와이 에이지로, 가와카미 하지메 등이 조선인 유학생들과 맺은 사제 관계를 중요하게 제

시한다.

이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고등학교의 자유로운 분위기나 일부 자유주의(혹은 사회주의)적인 교수들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제국대학의 전체적인 모습인지는 의문이다. 더 많은 다수의 교수들은 군국주의 이념의 생산과 확충, ‘제국’ 통치에 필요한 과학 기술의 전수에 더 몰두했다. 고등학교 기숙사의 “청춘의 꿈을 키우기에 어울리는 멋과 정취”란 학력 엘리트들의 특권 문화가 관행으로 정착한 것에 불과했다. 제국대학이나 고등학교의 ‘자유’는 천황제 국가 엘리트들에게 보장된 일종의 특권이었고, 대부분의 제국대학생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제국대학 출신 엘리트들은 대부분 체제가 허용한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인 제국대학 유학생들의 선택이나 이력을 친일/반일로 나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경험을 굳이 자유나 다양성의 면에서 서술하는 것 또한 과도한 해석인 듯하다.

저자는 해방 이후 남북한의 지식 재편 과정에서 제국대학 출신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제국대학 출신 지식인들 다수가 남북한 학계에서 활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지식 재편을 주도하거나 제도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남북한의 지식 제도는 급격히 미국형 또는 소련(사회주의)형으로 개편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국대학의 제도와 영향력은 급격히 사라졌다. 학문의 중심 영역 자체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국대학 출신 지식인들이 개인적으로 활약했다고 할지라도 그 집단의 역할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김건우 교수의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를 떠올렸다. 『제국대학의 조센징』과 여러 모로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정중현 교수는 ‘제국대학’이라는 식민지 엘리트 교육제도가 대한민국 엘리트의 기원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역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건우 교수도 일본 유학생 집단에 주목하기는 하지만, ‘학병세대’의 공통 경험과 기반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다. 좀 더 공부와 토론이 진행된다면 현대 한국의 지적 기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